

21  
/

## 기영삼 선생

기영삼 선생은 1910년에 원동변강 연  
해쪽 나호드까지 근방 동호동 에서 탄생하시  
였다. 향촌에서 소학교와 초급을 마감하신 다  
음 계속 공부를 계속하기 위하여 1926년에 다  
유지리 촌에 가서 1930년에 고급을 필하였다.  
같은해에 원동의 항구도시 울타-지워쓰도크 한인  
사범대학에 입학하여 2학년으로 수료하시고 3  
학년에서 공부할시 경제 곤란으로 인하여 학습  
을 중단하시고 부모들이 살고있는 "신영동" 고향  
로 촌에 돌아가시게 되었다.

경제난문제를 사대 3항년을 중회하신 김영삼 선생은 신영등 깰호르 (현재 우르베크만에 강레이주 판후 시영거우 "스웰드르브"라고 개칭하였슴) 에 돌아와서 초중교원으로 2년간 일하시였다.

김영삼 선생은 2년간 교원직업을 하면서 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분일초도 쉬지않았다. 그러던 결과 2년간에 벌어들인 돈을가지고 1934년에 북부 형제들과 어별하고 인제는 사범은 그만두고 러시아 남단 장벽을넘 러시아 중앙지구 꾸이비넵시 종합기술전문 대학 동력학부 (에너지) 에 입학하였다.

김영삼 선생은 이미 대학에서 공부하신 경험이 있었고 근본 상식이 깊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공학과 유용한 계 습득하는데 최우등생으로 공부하였다. 김선생이 제 5학년에서 공부할시, 아직 대학에서 졸업생들로 각 지방으로 배령하기 전에, 스벨드르브 깰호르 집행위원회는 꾸이비넵시 기술종합 전문 대학 지도부와 소련 정부 고등교육부에 편지를 써서 당년에 졸업하게 되는 김영삼 선생을 향촌 깰호르에 파견할것을 요청하였다.

소베트 정부와 대학지도부는 깰호르 회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을 유능한 성격으로 필한 자은 기술자 김영삼씨를 자기 향촌 깰호르에 파견하였다.

향촌 깰호르 집행위원회에 도착한 김영삼 동력기사는 깰호르 수력발전소 건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로 수력발전소 위치를 선택하기, 수력발전소 설계를 작성하되, 발전소 건설에

요구되는 모든 건설물자료를 타산하여 집행원칙에 제출하라는 위임을 받았다.

1941년 가을에 위임받고 ~~살충복제~~ 수력발전소 건설을 시작했던 김영삼 선생은 드디어 한해 반인 1943년 5월에 준공하여 ~~행촌~~ ~~끝노르~~ 마을에 전기를 끌어 전채 끝노르원들의 환의를 도쿠었다. 끝노르 마을의 수력발전소 준공문제는 끝노르원들의 수익성 제고의 한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김영삼 선생은 그후 끝노르 집행위원회의 동력부랑 겸 수력발전소 소장으로 일하시였다.

김영삼 선생은 1946년에 ~~조선공산당 중앙위원~~ 회의 결정에 의하여 북한 인공화국에 파견되었다. 북한에 도착한 김선생은 내각 직속 전기-동력 관리국장 직위에서 일하시였다.

1950년 6월 25일에 한반도에 동족상잔이 벌어지자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에 대하여 대폭격을 시작하였다.

1950년 6월 28일에 평양 중앙비행장을 대폭격한다. 7월 1일에 수력발전소를 대폭격하였다. 그런데 유엔 비행기들은 수력발전소 건물을 폭격하여 파괴한것이 아니라 건물에 ~~발전소실라~~ 고압선 등이 걸린 증기압력으로 대타격하였던 것이다.

김영삼 전기 동력 관리국장은 비폭격이 수를 4리 수력발전소에 친히 나가서 지도하시다가 동력 고압선 가까이 접근하였다가 전기에 치워서 바른팔과 바른다리 다리를 중상당하였었다.

그후 중앙 정부병원에서 입원하신 김영삼 선생은 치료(4)  
중 빠른 쾌유를 기대하셨고 다치는 완치되어 약 3개월이  
후 복귀 하시 자기 동행에서 일하시었다.

조선 동쪽 삼간이 시작되어 유엔군의 북한에 대한  
행동책이 아주 심하여 지자 평양은 성한 집이란 하나  
어느, 겨우 전이속에서 거리나 찾아볼수없는 빈허전어  
되고 알았다 어떤 형편에서 평양에 살고있던 간  
북 가족들은 전부나 길은 산골짜기나 그렇리 아니면 등  
만주로 후퇴하여 갔다. 이 당시 김영삼의 가정도  
북인 박인희 계씨는 갈남령에 아들화(4)를 데리고 중국  
항문시까지 후퇴하여 가서 계셨다.

조선 전쟁은 3년간이나 계속되어도 전선은 맨처음  
전쟁이 개시된 38북근에 공교로 정립되어 있고 남부어  
프레허로 돌아가는 농민생활은 농사로 할수 없었고 공장제  
조수, 상점이 다 파괴된 언젠은 내일같이 빈궁하여 갈  
뿐이었으나, 유엔군 비행기들의 폭격은 내일같이 심  
하여 가고, 무엇이나 유익이 있는 물건들에 대한  
기총소사로 너무나 심하여 농민들의 아전 장입도 할수  
없었다.

개성에서는 정전판판이 계속되고 있는 바로 1953년  
6월 28일 즉 정전 조인을 알린 한달전에 평양  
보란봉 지하극장에서 중정부 간부회의가 진행  
되었던화 김영삼 선생도 그 회의에 참가하시고  
금방 출입구에 나서자 지나가던 적기 한대가 기총

소사하는 그 한 환에 풍상당하여 <sup>5.</sup> 평원까지 후송하는  
도중 사망하시었다.

김영삼 선생은 밤어막 세상을 하직할시 북은 처라하나  
보시지 못하고 가까운 천주교와 같이 일하던 직원들의 손에  
안겨 유폐하시었다.

이후 일제말에 지누과 권력이 비출 되어, 이곳에 처한  
같은 평양시민 다수는 집어안 없건 없건 평양에 놓여  
들어 호굴박을 치고 살기 시작하였다.

어찌하여 김영삼 선생의 가족은 평양에 돌아와 <sup>강예복</sup>  
제사를 지내며, 매 절한 농사를 밟아 돌리려  
하였다.

김영삼 선생의 가족은 김영삼 선생의 사후 3년째  
제사를 지내던 1955년에 소련 무르비코란에 귀국  
하여, 김영삼 선생의 6행례의 감사품을 받아 악이  
들로 잘 장식하여 사회에 진출하던 밝인허 사문님으로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1995년에 세상을 떠났다.

2000년 2월 20일 강예복